

## 22. 염색가공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남 나이 45세 직종 염색 가공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차OO은 1986년부터 약 20년 간 염색관련 염색가공 업무에 종사하다 2004년 7월 황해염직에 입사한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하였는데, 2006년 8월에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OO염직에서 근로자 차OO의 업무는 CPT, 직가, 레피드 염색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관리감독 업무 뿐 아니라 염색공정의 업무를 실제 같이 진행하였다고 한다. 근무형태는 12시간 2교대 작업이었고, 계면활성제 종류의 약품들과 분산, 반응성 염료 등 염색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염색제를 취급하였다고 했다.

염료는 액상과 분말상이 있는데, 문답서에 의하면 하루 종일 분말로 된 재료를 물에 용해시키고, 조제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분말가루에 장시간 노출되었다고 하였으며, 근무 중 분말가루를 흡입함으로써 작업 후 목이 칼칼하고 입맛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실제 약품을 타는 시간은 5-10분 이내였으며, 하루에 8-10회를 약품 타는 일을 했다고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차OO은 입사전에 건강하였다고 하며,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일주일에 한 번, 한번 음주시 소주 1병을 마셨다. 가족력상 관련 질환은 없었다. 2006년 8월에 약 2개월간 기침을 주소로 인근 병원을 방문한 결과 폐암(adenocarcinoma)으로 진단되었고 그 당시 간과 척추, 골반으로 전이가 된 상태였다. 2005년 12월 고대 안산병원에서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상 폐결핵 의증이 있었으나 2차 검진에서는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관련 질병의 치료력도 없었다.

### 4. 결론: 근로자 차OO은

- ① 20여년 간 직물 염색업에 근무하였고, 2004년부터 황해염직에서 약 1년간 근무한 후 폐암으로 진단되었는데,
- ② 황해염직에서 취급한 염료 및 안료 중 발암성 크롬 니켈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수준이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 ③ 과거 20년간 근무한 작업장에서 노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현재까지 국내외의 연구에서 직물염색업종 근로자에서 폐암이 유의하게 높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실치 않으므로,

근로자 차OO의 폐암은 작업과 관련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